

서 평

박현선 |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서평】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박현선*

2017년 새해가 밝아오자 낡은 과거의 망령이 슬쩍 출현했다. 자택에서 새해 신년인사회를 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마비시킨 박근혜 현 대통령의 잘못을 일컬어 ‘혼자 사는’ ‘여자대통령’이 ‘신통치 않다’고 비꼬았다. 이 망령의 기괴함은 이중적으로 어이가 없다. 수천 수만의 피를 흘려가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멈추었으며 온갖 부정과 부패의 방석 위에서 일가의 부를 일궈낸 이 망령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한다는 것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남성/지도자/가장의 목소리에 힘입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혐오를 매우 확신에 차 발화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게 새해는 여성혐오 발언이 정치적으로 가장 바르지 않았던 한 망령의 입을 통해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촌평인양 튀어나오는 우화로 시작되었다. 우연한 일화가 아니라 정치적 우화가 아닐 수 없다. 2016년을 결산하는 많은 매체들에서 확인되었듯이, ‘여성혐오’와 그를 둘러싼 논쟁은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인식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일간베스트나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 등 온라인 사이트들을 기점으로 여성비하발언과 그에 반발한 반-여혐 미러링 간의 전투가 벌어지면 가시화되었다면, 2016년에 들어서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DJ DOC의 <수취인불명> 공연 취소, ‘병신년은 가고 정유년은 오라’와

*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연구소 전임연구원

같은 새해 인사말에 이르기까지 그 논쟁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이현재의 저서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은 ‘여성혐오’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 후’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제명을 달고 나오으로써 본격적으로 ‘여성혐오의 담론화’ 전략을 논하고 있는 책이다. 흥미롭게도, 이 책은 오랫동안 여성주의 진영에서 활동하고 연구해 온 한 페미니스트가 “현재 여성혐오가 담론화되는 방식에” 대해 느낀 “불편함”에서 출발한다. “여성혐오에 대한 비판은 또 다른 강력한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성적 대상화에 대한 비판은 강력한 규제주의나 성 엄숙주의로 치닫는 것 같았다”(11쪽)라고 필자는 토로한다. 성차별화된 사회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젠더 이분법과 폭력적 도그마들 앞에서 필자는 탈출의 계기를 모색하고, 돌파구는 책제목의 끝에서 만나는 ‘비체들’을 통해서 열린다.

『여성혐오, 그 후』는 그 목적과 구성이 간결하고 명확한 책이다. 필자는 여성혐오 담론화를 위한 네 가지 테제들을 이론과 현장의 교차적 비평인식 속에서 전개해 나간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1장 “여성혐오 다시 쓰기”가 여성혐오의 담론을 재고하며 비체의 구성적 전략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면, 2장 “도시화와 여성 비체의 등장”은 도시화라는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여성주체들을 논의한다. 3장 “여성혐오와 왜곡된 인정욕망”은 자본주의 변환의 시대에 작동하는 여성혐오의 기제를 인정욕망의 측면에서 이론적, 비판적으로 파헤치고 있으며, 마지막 장인 4장 “비체를 위한 윤리”는 여성혐오의 담론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비체의 정동과 윤리학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혐오의 범위는 매우 넓고 그 역사는 매우 깊다. 혐오의 기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밀하게 퍼져있어서, 우리는 여성혐오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필자는 여성혐오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감정적 혐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을 멸시하고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 전반”(21쪽)을 의미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여성혐오의 사회구조적 함의는 남성지배의 정치경제학에서 여성이 교환의 대상이자 경제적 상품으로 거래되는 방식에서 그 흑막이 드러난다. 이는 게일 루빈과 뤼스 이리가레 등의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에서 비롯된 바, 이현재는 이들의 이론적 논제를 앞세움으로써 이전 세대 페미니즘의 논의와 당대적 사안을 연결시킨다. 이어서 우에노 치즈코의 논의가 빠지지 않고 이어진다. “성별이원제 젠더 질서의 깊고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핵”¹⁾으로서 여성혐오를 지목했던 우에노는 아시아에서 여성혐오의 담론화를 확산시킨 가장 중요한 여성학자 중 한명이다. 남성연대의 무의식을 파헤친 우에노의 논의는 어떻게 여성혐오가 남성들의 권력과 쾌락에 복무하며 사회구조의 지배적 발화 기제로 작동하는가를 추적한 것이다. 이 현재 역시 여성혐오의 담화가 사회전반에 확대되어 있는 사안임을 강조한다. 혐오발화에 있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남성들의 발화 자체가 아니라 그 발화를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수행시키는 남성적 발화방식이다. 예를 들어, 여성을 나누는 가장 보편적인 도상으로 치부되는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이 여성 자신에 의해서 내면화되어 수행될 때, 여성은 남성의 여성혐오에 자연스럽게 귀속된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책의 동기이자 강한 무기가 되는 이 고민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빠져 있는 혐오의 구조적 순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반-여혐의 노력 속에서 어떻게 남성 대 여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을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기존 논의들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포스트’ 여성혐오의 문제설정인 동시에 젠더 위계화된 사회구조의 ‘외부,’ 즉 다양한 타자들의 위치를 묻는 시도이기도 하다.

여성혐오에 대항하며 온라인상에서 정치화된 여성 비체의 출현이 더

1)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0, 12쪽.

노골적인 '혐오'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왔다. 각종 남초 사이트들에서 표현되는 여성혐오는 마치 자신들의 여성혐오가 발각되고 미러링되는 것에 대한 놀람을 방어하기 위함인 듯 더욱 본격화되었다. 전투는 남성 마초 대 페미니스트 여초 사이의 대립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여성혐오에 반대하며 지지하길 원했던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과 매체들에 기이한 혐의가 덧씌워지고, 혐오의 발화와 정동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혐오를 반대하는 이들 모두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렇게 혐오가 악순환되는 국면에서, 이현재는 남성들의 여성혐오구조를 반사해 그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미러링을 '잠정적인 동일시'이자 '이중적인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들이 남성의 언어와 감정을 그대로 공유해 남성 집단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여성혐오의 구조를 파괴하지 못한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여성들 스스로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 1세대 페미니즘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남성우월주의 대신에 여성우월주의를 공포하는 것은 강자의 자리를 욕망하는 '권력의 의지' 이외에 다른 아 니기 때문이다.

이현재는 여성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원론적 성평등주의 대신에, '비체'라는 타자의 정치학에 주목한다. 흔히, 타자에 대한 혐오는 이질적 대상에 대해 느끼는 주체의 거부감과 그로테스크함에서 출발한다. 주체는 자신의 인식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타자의 생경한 존재양식을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방식으로 그 인식차를 봉합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체는 '타자'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²⁾ 비체는 단어 자체에 문제적 존재의 위상학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비체는 한 때 주체의 안,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으나 어

2) 이론적 개념으로서 '비체'는 메리 더글러스가 오염과 불결함에 대해 분석한 책에서 주목받은 바 있지만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그 의미를 급진적으로 전유되면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체의 잠재적 급진성은 바바라 크리드의 괴물스런 여성의 시각 정치학과 엘리자베스 그로츠의 육체 페미니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서민원 역, 동문선, 2001; 바바라 크리드,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손희정 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8)

느 순간 밖, 외부의 대상으로 흘러넘침으로써 - 침과 생리혈, 빠진 머리 카락과 점액질 등이 주는 부정적 감각들과 같이 - 주체의 동질성과 질서의 체계를 교란시킨다. 즉, 비체(에브젝트, abject)는 주체(subject)와 대상(object)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그로츠는 말하길, “비체는 몸이 그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객체, 안/밖이라는 이항대립으로 환원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³⁾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비천함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질적이어서 피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 혐오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비체의 급진적인 위치성과 유동성이 질서를 교란시키고 경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현재가 주목하는 여성 비체들 역시 그러한 특징들을 지닌다.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이 상상해왔던 그 주체성에 꼭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의 페미니즘 언어로도 뚜렷하게 설명될 수 없는 존재방식을 갖는다. 그녀들은 통일된 이념을 갖지 않으며 남성과의 경쟁에도 익숙할 뿐 아니라 페미니즘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의 전략을 수행한다.”(13쪽)

“여성혐오의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힘”(37)으로서 이현재는 비체를 긍정적으로 재전유한다. 통합적 정체성으로 이해받기를 거부하며 비체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한다. ‘젠더 패러디,’ ‘가면쓰기(마스커레이드),’ ‘잡년되기,’ ‘여성성의 재전유’라는 네 가지 전략적 비체되기의 방식들이 그 예들이다. 각각의 전략들은 이미 서구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실천되고 역사화된 바 있다. 핵심적인 발견은 이러한 전략들이 최근 국내의 여성혐오 비판진영에서 매우 우연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현재는 ‘전략’으로서 비체되기를 주체/대상의 명명화를 넘어서 ‘행위자성’을 추동하는 존재방식으로서 보고, 그러한 행위들을 더욱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디시인사이드와 메르스갤러리의 ‘미러링’에서부터 섹스와 쾌락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인 향유, 배려와

3) 엘리자베스 그로츠의 『피비우스 떠로서 몸』, 임옥희 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366쪽.

돌봄이라는 여성적 윤리의 재발견 등에 이르기까지 비체되기의 전략들은 매우 다양해서 페미니즘의 통념을 벗어나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이 포진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한다. 관건은 이들을 다시 어떻게 '페미니즘의 깃발' 아래 연결하는가이며 이들이 지닌 비체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가이다.

『여성혐오, 그 후』는 페미니즘 안에서 다양한 여성 비체들에게 전략적 언어와 이론을 마련해주기 위해 고심하는 동시에, 여성혐오의 사회문화적 토대로서 '도시화'라는 자본주의적 삶의 확산에 주목한다. 현대 사회는 인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과급이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필자가 지적한 바대로, 그 곳이 어디든 이미 '도시적 사회'로서 기능한다. 인도의 시골 마을 아이들은 샤넬과 크리스찬 디올 등 화장품에 쓰일 운모를 채취하기 위해 어두운 지하터널로 내려가며, 아프리카나 남미의 농장 노동자들은 도시에서 소비될 대량의 커피와 설탕을 대기 위해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 도시 속의 삶은 어떠한가? 자본의 착취는 물질적 노동을 넘어서 기술과 지식, 감정의 비물질적 영역에서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최근의 도시화와 관련해서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 점은 게오르그 짐멜이 20세기 초 메트로폴리스 삶의 특징으로 '무관심하고 지적인' 것을 지적했던 것에 반해서,⁴⁾ 21세기 글로벌 도시의 삶은 '감정의 격돌'(59쪽)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현재는 도시적 삶의 감정적 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찰한다. "문화적 실패의 상황에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생산과 소비의 삶은 불안과 우울의 감정을 확산시키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마주치게 되는 타인들의 급진적 타자성은 예기치 못한 상처, 혐오, 분노를 만들어낸다. [...] 도시적으로 산다는 것은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감정을 안고 산다는 것이며, 언제 터져버릴지도 모를 감정의 격동을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59쪽)

이 책에서 필자가 여성혐오의 사회적 조건을 도시화의 문제와 연결시

4) 게오르그 짐멜, 『대도시와 정신적인 삶』, 『짐멜의 모더니티읽기』, 김택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키는 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⁵⁾ 특히, 여성혐오의 역사적 기원과 연결해 볼 때, 한국의 도시화가 본격화된 시기인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와 서구자본주의를 동시에 경험하는 식민지 조선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당시 여성들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자유를 누리긴 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사회적, 민족주의적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⁶⁾ 과도하게 치장을 하며 최신식 문물을 소비하는 신여성, 모던 걸들의 이미지에 대해 쏟아졌던 세간의 비판과 조롱, 혐오들은 현대의 ‘김치녀’와 ‘된장녀’ 논란, ‘무녀아적 페미니스트’ 등의 발언과 놀랄 정도로 흡사한 측면이 있다. 흥미로운 차이는 식민지 근대성의 시절, 소비문화와 도시화와 연결된 맥락에서 신문물과 지식을 겸비한 여성이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 (남성들의)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정치적 염원이었다면, 최근의 여성혐오가 나타나는 방식은 ‘정치화의 부재’ 속에서 벌어지는 ‘인정투쟁’의 개인화된 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혐오 집단 내부의 욕망을 분석한 장에서 이현재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늪에 빠진 남성들의 좌절과, 허무, 혐오의 심리를 ‘인정투쟁’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중년 피의자와 일베의 젊은 남성들은 유사한 수사학을 사용하며 자신들이 당한 역차별과 무시, 모욕에 대해 앙갚음을 하려고 했다. 이현재는 악셀 호네프의 ‘성취원리’ 개념을 인용하며 어떻게 이 시대의 유연 자본주의가 개인들 각각에게 자아의 계발과 성취, 인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쟁을 부추기는가를 살펴본다.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는 ‘성취인정’의 투쟁에서 타자에 대한 혐오

5)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의 역사적, 정치적 기원들과 관련해 더욱 많은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나온 논의로는, 여성혐오를 1987년 체제의 전환과정과 연결시킨 손희정의 논문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획된 여성혐오의 표상 질서에 관한 허윤의 논문 등이 이런 작업에 흥미롭게 연결될 수 있다. (손희정, 『혐오의 시대 -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 2015; 허윤,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35, 2016)

6) 참조서적으로는, 서지영, 『경성의 모던 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3.

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가 된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를 당당히 성취하고 있는 여성들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여성 비체들은 공격되고 혐오된다. 이에 대해 이현재는 '인정의 이데올로기화'(97쪽)라는 개념을 주조하는데, 이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인정욕망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 이유는 인정의 개념에 담긴 긍정적 해방적 계기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폐해가 계급과 젠더의 불평등 관계 속에 드러나는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어떠한 사회적 제도나 물질적 토대의 변화 없이 자기 계발과 평등, 성취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성혐오 집단이 젠더관계의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동적 성취인정'에서 나타나는 피로감을 달래주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흠어져 과열된 성취인정에 몰두하는 남성들은 끊임없이 자기과시의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무한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은 집단적 남성성을 고착시키는 젠더관계의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 한다는 것이다."(102) 이데올로기적 인정 속에서 남성들은 단단한 자아를 상상하고 집단적 귀속감을 확인하며 이를 위협하는 모든 비체들에게 공격의 칼날을 베푼다. 여기서, 이현재는 인정의 정당한 욕구로부터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분리하고 다시금 모든 삶의 상호인정을 향해 나아갈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첫째, 각 개인의 자율성이 공동체 내에서 상호인정되는 것이 구상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딱딱하게 물화되지 않고 탄력성있는 정체성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젠더를 둘러싼 인정 투쟁은 젠더 내부의 차이를 해방시키고, 나아가 젠더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07쪽) 셋째, 구조적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 인정과는 달리, 물질적 재분배와 제도적 장치가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어려운 과제이자 야심찬 의제는 마지막 장에서 집중적으로 제시된다. 이현재는 여성혐오를 지속시키는 지배적 젠더 체계를 어떻게 어디에서 변화시킬 것인가 묻고 있다. "비체는 지배적 젠더 체계 내부에서 혐오되기 위해 만들어진 구성적 외부이다. 따라서 지배적 젠더 체계

를 변화시키려면,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성토히는 대신 구성적 외부인 비체들에 의해 체계가 균열되는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115쪽) 엘리자베스 라이트의 라캉 해석을 인용하며, 필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근'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성차 분화 과정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모두 소외를 겪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남근 질서 아래, 아들은 자신의 거세를 피하기 위해 여성에게서 환상을 추구하다면, 여성은 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남근의 질서에서 줄타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전개되기보다는 다소 파편적으로 성급하게 진행된 것만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핵심은 도시화 과정에서 동일하게 소외된 남성과 여성이 대안적 도시의 삶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 비체되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필자의 지적이다.

『여성혐오, 그 후』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비체들의 윤리적 감정의 생산과 소통이다. “만약 우리가 비체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줄 감정의 양식을 윤리적으로 요청한다면, 그 감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122쪽) 이에 답하기 위해, 전통적인 정의론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한 도덕적 감정들로, 수치심, 동정, 동감 등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진다. 이현재는 비체들 간의 소통에서 수치심이나 동정심이 한계를 갖는다고 보는데, 수치심이 완벽한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 추동되는 감정으로 공격적 나르시시즘을 숨기고 있을 수 있으며,⁷⁾ “동정심은 동정을 베푸는

7) 여기서 수치심은 도널드 위니콧이나 마사 누스바움의 개념화를 통해서 소개되는데, 사실 수치심과 관련해서는 다른 식의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라 아베드의 사랑에 대한 연관성을 생각해본다면, 과연 수치심(shame)이 혐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완벽한 지위를 방해받은 데서만 기인하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자신이 이상적 상태에 미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행위인 동시에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 타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윤리적 실천이 되기도 한다. 물론, ‘수치심’의 윤리적 정치학에 대해 여성 비체들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역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각의 감정들이 그 정치적 효과에 따라 위계적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공감’을 이루어내는 다양한 감정들의 혼합을 자칫 무시하는 아닐

자의 우월적 정체성이 위협되지 않는 한에서만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127쪽) 비교적 자아와 타자의 동일성에 기반한 동감 역시 이현재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감정으로 본다. 동감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타자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종잡을 수 없고 자신의 이해능력을 벗어나 움직이는 비체들을 동감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비체들의 급진성은 순화되고 내 편의 동질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비체들을 위한 윤리적 감정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감'(co-feeling)이다. 길리건과 위진스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도덕적 정향을 갖고 성장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도덕적 판단을 추동하는 감정으로 공감을 제안한 바 있는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이다. 공감은 “자아와 타자를 상호의존된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가능하다.”(131쪽) 이 때 도시적 삶은 앞서 말한 대로 무한경쟁과 이데올로기 인정에 노출되어 있는 한편으로, 마주침과 감정의 전환, 공감적 연대가 가능한 장소이기도 하다. “비체들의 공감적 마주침은 비체들을 구성적 외부로 간주하여 배제했던 그 공간의 내부에서 발생한다.” (139쪽)

이현재는 새롭게 등장한 여성비체들에게 역지로 페미니즘의 정체성을 부과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언어와 위치들을 발견할 것을 강조한다. 비체의 흐름이 언어와 규범의 경계 위에서 넘나드는 움직임이라면, 그 움직임이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웅성거리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현재가 주목하는 것은 비체들의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고, 소리를 말로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페미니즘의 비전과 이론이다. 비체에서 주체로의 회귀가 아니라 비체들 간의 연대와 변화가 보이는 것은 여성혐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삶의 가치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성비체들이 이동하는 순간들이다.

『여성혐오, 그 후』가 출판된 직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여성 비체들의 연대는 다시한번 가시화되었다. 여성행동주의자에

서 학생, 프로그래머, 영화감독지망생, 예술가와 주부들이 광화문 광장‘페미존’에서 지속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집회에서 쏟아진 여러 혐오발언과 혐오문구들에 이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운동과 시민 운동, 평등 운동의 의미에 대해 가장 급진적인 화두를 던졌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집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DJ DOC의 ‘수취인불명’의 무대공연 취소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비판적 문화/정치의 장에도 스며들어 있는 여성혐오의 문제를 이 사건이 가시화시켰다는 것이고, 둘째, 온라인 공간에서 안티테제적 존재로 출발한 운동이 오프라인 광장에서 양성 평등에 기초한 공론장의 실천을 요구했고 관철했다는 사실이다. 페미당당과 강남역 10번 출구, 불꽃페미액션 등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연대는 여성주의를 화두로 하지 않는 정치적 집회 현장에서 반쪽의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 억압된 문제들을 끄집어냄으로서 더 온전한 의미에서의 ‘큰 민주주의’를 보여준다. 어째서 이번 촛불집회가 양성 평등의 평화시위여야 하는지, 정치비판의 경계선이 어디서 반여성혐오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는지 제시한 이들이 바로 이번 촛불집회에서의 여성 비체들이다. 이들의 외침은 더 이상 소리들이 아니라, 이현재가 제시한 바, 여성 비체들의 연대를 보여주는 새로운 ‘말’들이 아니겠는가.

